다지원 2008년 여름강의 <현대 정치철학의 고전들>

제3강 네그리(Antonio Negri)와 하트(Michael Hardt)의 『다중』(*Multitude*)편

강사 정남영

I. 서언

1. 책의 목적

"오늘날 전지구적 규모의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최초로 출현하고 있다. 이 책은 이 가능성에 관한 책, 우리가 다중의 기획이라고 부르는 것에 관한 책이다."

2. 『제국』과의 차이

『제국』은 새로운 주권형태를 다루었고, 이제 『다중』은 새로운 전지구적 계급을 다룬다.

3. 제국/전쟁 vs. 다중/민주주의

제국은 자신의 정당화를 위해 전쟁을 부르고, 다중은 그 정치적 토대로서 민주주의를 부른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주요한 장애는 전지구적 전쟁상태이다. 전쟁과 대립하는 이 민주주의는 '절대적 민주주의'이다.

4. 새로운 개념들

- 삶정치(적 생산)[1] : 지식, 정보, 소통, 정동 등을 생산함으로써 공통적인 삶을 생산하는 다중의 구성활동을 지칭한다.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물질적 재화의 생산이 경제적·문화적·정치적인 것에 걸친 사회적 삶의 모든 측면들을 생산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개념이다. 이것은 삶의 욕망들을 조직하는 과정으로서 죽음의 공포을 생산하는 삶권력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다.이 삶정치적 생산과 그에 의한 공통적인 것의 확장은 오늘날 전 지구적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지탱하는 하나의 강력한 대들보이다.
- 삶권력[2] : 인구를 통제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삶의 모든 측면들을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지배의 형식. 삶권력은 주권적 권위로서 초월적으로 사회의 위에 서있으며, 질서를 부과한다.
- 다중[3] : 탈근대의 프롤레타리아 계급이다.
- 절대적 민주주의 :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넘어서, 다중이 삶정치적 생산을 통해 협동적으로 창출하고 유지하는 민주주의이다.
- 공통성과 특이성[4] : 다른 어떤 것으로도 환원되지 않으며 계속적으로 변이하는 창조적 활력을 지닌 것으로 파악된 모든 개체(적 벡터)가 특이성이다. 공통성은 이 특이성들이 이루는 창조적 상호협동의 네트워크가 가진 속성을 말한다.(소통 + 새로운 의미, 가치의 생산) 다중은 서로 모순적인 '동일성-차이'의 쌍을 이 '공통성-특이성' 쌍으로 대체한다.

II. 책의 주요 내용

---

1) bio-politics/bio-political production
2) bio-power
3) multitude
4) commonality and singularity

1. 전쟁

▶ 근대적 전쟁과 탈근대적 전쟁의 차이

근대적 전쟁	탈근대적 전쟁
제한된 예외상태(비상상태)	영원하고 일반적인 것이 된 예외상태(비상상태) → 미국의 예외주의[5]
국가 간의 갈등에 국한된다.	일국 내의 갈등으로도 확대된다.
정치의 연속 즉 정치를 정치가 아닌 다른 수단으로 계속하는 것이다.	전쟁은 사회를 조직하는 주된 원리가 되고 있으며, 정치는 단지 그 수단 혹은 위장(僞裝)들 중 하나이다. 전쟁은 삶권력(bio-power)의 체제가 된다.
종교나 도덕 같은 다른 사회적 주장들과는 분리된다.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개념은 전쟁을 특정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인류 전체의 이해관계로 보편화하는 데 복무한다.
전쟁이 법적 구조들(국제법)을 통하여 조정되었다.	이제 전쟁은 자신의 법적 틀을 직접 구축하고 부과함으로써 조정의 주체가 된다.
복지국가(welfare state)	전쟁국가(warfare state)
방어[6]	안보[7]

▶ 새로운 종류의 전쟁의 귀결

① 전쟁의 한계가 불확정적이 된다. 전쟁은 경찰행위와 실질적으로 구별 불가능하게 되었다.

② 국제관계와 국내 정치가 점점 유사해지고 뒤섞이게 된다. 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행위와 경찰행위의 이러한 교차라는 맥락에서는 민족국가의 한과 밖의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 저항세력의 범죄집단화. 이런 점에서 전쟁과 경찰행위의 개념적 혼합은 모든 사회변혁세력들에게 장애물이다. (예: 7, 80년대 한국의 공안정치, 이명박 정부의 촛불집회에 대한 태도)

③ 적이 추상적이고 무제한적이 되는 만큼, 아군도 확대되어 잠재적으로 전지구적이 된다.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개념. 정의 개념은 전쟁을 특정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인류 전체의 이해관계로 보편화하는 데 복무한다. 정의는 근대적 전쟁 개념에 속하지 않는다. 근대의 현실주의 전쟁 이론가들이 전쟁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했을 때 그들의 의도는 전쟁을 국가 간의 정치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나 도덕 같은 다른 사회적 주장들과는 분리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 진정한 형태의 안보와 제국적 안보

안보 자체가 반드시 억압이나 폭력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지성, 정보, 그리고 정동(affect)과 같은 비물질적 생산물들에 기초를 두는 사회적 노동의 새로운 형태들과 그것이 창조해 내는 사회적 네트워크들은, 협력을 통해 **내적으로** 조직되고 통제된다. 이것이 안보의 실제적 형태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해 오고 있는 안보 개념은 **외적으로** 부과된다. 이 개념은 추상적인 적들이라는 관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폭력을 정당화하고 자유를 제약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안보의 두 관념

---

5) ① 유럽적 주권형태들의 부패로부터의 예외, 공화주의적 덕을 알리는 횃불의 역할을 함. ② 법으로부터의 예외 즉 국제적 협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함.

6) 근대의 민주적 국가들은 한결같이 모든 형태의 군사적 공격을 불법으로 정했으며, 헌법상으로 의회는 방어적 전쟁을 선포할 힘만을 부여하였다.

7) ① 안보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선제공격 및 예방공격의 정당화는 민족적 주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국경을 점차로 중요하지 않게 만든다. ② 안보라는 관념은 삶권력의 한 형태이다. ③ 안보는 안과 바깥 사이의, 군사와 경찰 사이의 구분의 결핍을 나타낸다.

들—그중 하나는 협력에 기초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폭력에 기반을 두고 있다—은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서로 직접적으로 갈등하고 있다.

▶ 4번에 걸친 전쟁 성격의 변화

① 1차 세계대전: 유럽 민족국가들 간의 갈등. 그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적 구조의 전지구적 확대.

② 2차 세계대전: 아시아와 유럽에 동등하게 중심을 두고 1차 대전을 반복하지만, 이제 소련과 미국의 개입에 의하여 해결된다. 결과적으로 양국은 새로운 전지구적 갈등의 양측을 결정한다.

③ 냉전: 대부분의 민족국가들이 두 진영에 줄을 선다.

④ 제국적 전쟁: 이제 주권을 가진 민족국가들이 전쟁의 '편'을 주요하게 정의하지 않는다.

▶ 네트워크 vs. 네트워크

911 이후에 미국과 그 연합국의 지도자들이 마지못해 얻은 교훈은 그들이 대면하고 있는 적은 단일한 주권국가가 아니라 네트워크라는 사실이다. 새로운 형태의 적이다. 오늘날 모든 전쟁은 네트 전쟁이 되는 경향이 있다. 네트워크 형태는 대항반란의 관점에서 보면 전통적 조직에서 게릴라조직으로 이르는 진화가 나타내는 경향의 확대이며 완성이다.

① 전통적 군사구조는 부챗살 모양의 네트워크이다. 모든 소통과 명령은 중심에서 고정된 선을 따라 바깥으로 방사한다.

② 게릴라 구조는 다중심적 네트워크이다. a polycentric network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다수의 다발들.

③ 마지막 모델은 분산된 혹은 전면적(full-matrix) 네트워크이다. 중심이 없고 모든 결절이 다른 결절과 소통할 수 있다. 개미떼 혹은 벌떼(a swarm of ants or bees)이다. 게릴라 조직은 머리가 많지만, 떼는 머리가 없다. 낡은 대(對)반란전략은 떼에 대항하지 못한다. '참수모델'(decapitation model)[8]은 반란조직들이 다중심적이 되면서 점차 효력을 잃는다. 환경박멸 모델(environment-deprivation)은 적이 단순히 참수만으로 무너지지 않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반란조직들이 더 복잡해지고 분산된 네트워크 구조를 띠어가면서 이 모델의 성공률은 점차 줄어든다. 대항반란전략도 새로운 기술을 창출해야 한다. 네트워크와 싸우는 데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군사에서의 혁명만이 아니라 권력의 형태 자체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일방주의적 통제를 폐기하고 네트워크 구조를 채택하는 것은 초강대국이 베푼 박애의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대항반란 전략의 필요에 의해 강제된 것이다. 이 군사적 필요성은 일방주의와 다자주의 사이의 논쟁과 미국과 UN 사이의 갈등을 불러일으키지만, 실제로 이것은 이 틀 모두를 벗어난다. 권력의 네트워크 형태는 오늘날 질서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이다.

▶ 근대적 반란과 탈근대적 반란

근대적 반란	탈근대적 반란
① 대중의 봉기에서 정치적 전위의 창출로 ② 내전에서 혁명정부의 구축으로 ③ 대항권력의 조직들의 구축에서 국가권력의 장악으로 ④ 제헌과정의 개시에서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수립으로 순차적으로 움직인다.	이런 순차적 과정은 오늘날 불가능하다. 반란의 경험은 이제 다중의 살(flesh) 속에서 재발견되어야 한다. 이제 반란활동은 단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발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저항, 탈출, 적 권력의 공동화, 그리고 다중에 의한 새로운 사회의 구축은 동일한 과정인 것이다.

8) 적의 본부, 핵심부를 파괴하는 것.

▶ 네트워크 투쟁으로의 발전과정

① 산발적인 게릴라 반란에서 민중군(인민군)이라는 통일적, 위계적, 중앙집중적 모델로－농민적 경험에서 산업노동자들의 경험으로의 이행에 상응.

② 중앙집중화된 군사구조에서 다중심적 게릴라군으로－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욕망의 확대. 쿠바 모델.

③ 다중심적 모델에서 분산된, 혹은 전면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 1968년 이후. 이제 게릴라전의 기술은 포스트포드주의적 생산의 조건에 적응하기 시작. 정보 시스템들 및 네트워크 구조들에 맞추어. 게릴라전이 점증적으로 삶정치적 생산의 특징들을 채택하고 사회의 전역에 퍼지면서 포스트포디즘적 생산처럼 새로운 주체성들과 새로운 삶의 형식을 직접적으로 생산.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주체성, 물질적인 동시에 비물질적인 주체성을. 아제 마음과 머리를 얻는 문제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과 머리를 창조하는 것이 문제다. 새로운 소통회로의 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협동의 구축을 통해서, 새로운 상호작용의 양태들의 구축을 통해서. 게릴라 구조의 민주적 요소들은 네트워크 형식에서 더 진척되며 조직은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줄어들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

▶ 저항 형태의 세 원리와 네트워크 투쟁

① 특수한 형태의 권력과 싸우는 데 가장 효율적인 형태

② 저항의 변화하는 형태와 사회경제적 생산의 변화들 사이의 상응.

③ 저항형태가 새로워질수록 더 민주적이 된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 원리가 합치하는 지점에 이르렀다. 분산된 네트워크구조는 지배적인 사회경제적 생산에 상응하며 지배계급의 권력구조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도 한 절대적으로 민주적인 조직의 모델을 제공한다.

▶ 떼지성

동물사회에 의해 시사되고 이 연구자들에 의해 발전된 떼 모델(swarm model)은 떼 안의 개별 행위자들이나 입자들이 실제로는 동일하며 그 자체로는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다고 가정한다. 그와 반대로 새로운 네트워크 정치조직에서 출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떼들은 상이한 창의적 행위자들의 다중으로 구성된다. 이것은 그 모델에 더 많은 복잡한 층들을 추가한다. 다중의 구성원들은 동일하게 될 필요가 없으며,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창의성을 내던질 필요도 없다. 그들은 인종, 성별, 섹슈얼리티 등등의 면에서 차이를 유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갖가지 다양체(multiplicity)의 소통과 협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집합적 지성이다.

2. 다중

▶ 다중의 정의

－인구를 구성하는 개인들과 계층들의 차이를 동일성으로 종합하거나 환원한 민중(people)과 달리 다중은 이와 달리 통일되어 있지 않고 복수적이며 다수적이다. 따라서 민중은 주권적 권력으로서 지배할 수 있지만(민중권력과 그에 기반을 둔 국가) 다중은 지배하지 못한다.

- 다중은 특이성들(singularities)로 구성된다. 여기서 특이성으로 의미하는 바는 차이가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사회적 주체이다.

－다중은 비록 복수적으로 남아 있다 할지라도, 파편적이거나 무정부적이거나 지리멸렬하지 않다. 특이성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해서 행동하는 다중은 능동적인 사회적 주

체를 나타낸다.[9]

- 다중은 내적으로 차이나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이다. 다중의 구성과 행동은 정체성이나 통일성에 기초하지 않고 자신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기초한다.
- 다중은 다수적이고 내적으로 차이가 나지만 공동으로 행동할 수 있으며, 따라서 스스로를 지배할 수 있다. 다중은 명령하는 부분과 명령에 복종하는 부분을 가진 정치적 조직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배하는 살아있는 살(flesh)이다. 다중은 민주주의 즉 만인에 의한 만인의 지배(the rule of everyone by everyone)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사회적 주체이다.
-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다중은 노동의 공통적 주체 즉 탈근대적 생산의 실제적 살인 동시에 집단적 자본이 자신의 전지구적 발전을 이루기 위한 원천으로 삼는 대상이다. 국가가 다중을 민중(국민)으로 만들 듯이, 자본은 다중을 유기적 통일체로 만든다.
- 다중은 계급개념이다.[10] 계급은 계급투쟁에 의하여 결정된다. 즉 집단적 저항행동들을 통하여 형성된다.
- 계급은 구성적 배치이며, 기획이다. 다중은 계급의 현재의 경험적 실존에 기반을 두고 있다기보다는 그 가능성의 조건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 물어야 할 것은 '다중이란 무엇인가?'가 아니라 '다중이 무엇이 될 수 있는가?'이다.

▶ 다중과 19/20세기 노동계급의 차이

다중은 자본의 지배 하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자본의 지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계급을 잠재적으로 의미하지만, 노동계급은 배제에 기반을 둔 제한된 개념이다. 협의의 노동계급은 산업노동자들을 의미하고 광의의 노동계급은 임금노동자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제는 노동 사이에 종류의 차이가 있다—예컨대 남성노동과 여성노동, 산업노동과 농업노동, 고용노동과 비고용노동, 노동자들과 빈민—는 생각에 기반을 둔다. 이것이 과거에 어떠했든 지금은 타당하지 않다는 데 다중개념이 기반을 둔다. 노동의 형태들 사이에 정치적 우열은 없다. 모든 노동들은 오늘날 사회적으로 생산적이며, 공통적으로 생산하고 자본의 지배에 저항하는 공통의 잠재력, 저항의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 이렇듯 다중은 노동계급의 배제성과 반대로 열려있고 확장적인 개념이다. 다중은 프롤레타리아개념에 가장 온전한 정의—자본의 지배 아래에서 노동하고 생산하는 모든 이들—를 부여한다. 노동을 나누는 종류의 차이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유형의 노동들이 소통하고 협동하고 공통적으로 되는 조건들이 존재한다.

▶ 빈자(the poor)

빈자들, 우리 사회에서 고용되지 않았거나 불완전하게 고용된(underemployed) 사람들은 실상 임금을 받는 위치에 있지 않더라도 사회적 생산에서 활동을 한다. 이렇게 사회적 생산에 포함되고 전통적인 노동계급과 함께 공통적 조건에 참여하는 정도만큼 빈자(빈민)는 잠재적으로 다중의 일부이다.

▶ 새로운 위계와 분할

---

9) 이런 점에서 대중(the masses), 군중(the crowd), 폭중(mob)과 다르다. 이 집단들의 구성요소는 특이성들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구성요소들의 차이들이 너무나 쉽게 전체의 무차별성으로 해소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더욱이 이 사회적 주체들은 스스로 행동할 수 없고 오히려 지도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수동적이다. 군중이나 폭중 또는 폭도는 사회적 결과들— 종종 끔찍하게 파괴적인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외부로부터의 조작에 그렇게 쉽게 영향을 받는 이유이다.

10) 전통적으로 경제적 계급에 대한 이론들은 통일성과 복수성이라는 두 극을 갖는다. 전자는 맑스와 연관된다. 자본에 대립하는 프롤레타리아로 수렴되는 현상. 후자는 자유주의적 주장들이 대표적이다. 이 극은 둘 다 옳다. 양자 중 하나를 고르라는 명령은 계급을 단지 경험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며, 계급이 정치적으로 정의되는 정도를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중개념은 계급이론이 통일성과 다수성 사이에서 택일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도록 의도된 것이다.

경제적 부와 권력은 오늘날 세계전역에 계속해서 불균등하게 분배되지만, 권력의 지도를 그리는 데 사용되었던 국가적 선들은 변하고 있다. 1960년대에 제3세계론 경제학자들의 전투마(戰鬪馬)였던, 불균등발전과 부등가교환이라는 개념들은 제1세계 나라들과 제3세계 나라들 사이의 착취 수준의 근본적인 차이를 조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개념들은 전 지구적 분할들과 위계들의 견고한 지속성－왜 부유한 나라들은 계속해서 부유하고 가난한 나라들은 계속해서 가난한가－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불균등발전은 전 세계의 특권적인 나라들이 어떻게, 종속국들의 지원을 받아 그리고 그 나라들의 희생으로, 점점 더 진전된 생산성과 이윤의 체제를 창출하는지를 서술한다. 부등가교환은 가난한 나라들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이 세계시장에서 부단히 과소평가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실상 가난한 나라들이 부유한 나라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셈이지 그 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리킨다. 더욱이 이 불평등 체계들은, 특정한 정치적 조건들 아래에서 자본주의적 지배의 전체 발판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 자본주의 발전의 내부의 모순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적 지구화는 가능한 가장 나쁜 방식으로－ 전 세계 나라들의 노동관계들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균등과 불평등의 부당한 메커니즘들을 세계 전역에 만연시킴으로써－이 문제를 그럭저럭 해결해 왔다. 오늘날 불균등발전과 부등가교환은 로스앤젤레스의 가장 부유한 지역과 가장 가난한 지역 사이에도, 모스크바와 시베리아 사이에도, 모든 유럽 도시의 중심부와 주변부 사이에도, 지중해의 북부 연안 지역들과 남부 연안 지역들 사이에도, 일본의 남부와 북부의 섬들 사이에도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할 수 있다.) 로스앤젤레스의 남부 및 중앙 지역과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모두에, 노동력 가격의 차별화를 통한 삶정치적 덤핑 과정들이 존재하며, 그래서 여기서는 특정 노동자들의 노동은 더 많은 가치를 지니고 다른 노동자들의 노동은 더 적은 가치를 지니며 일부 노동자들의 노동은 경제적 가치를 거의 전혀 지니지 못한다. 물론, 일반적이고 개략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국가들 사이에, 전 세계의 커다란 지리적 지대들 사이에, 유럽과 아프리카 사이에, 북미와 남미 사이에, 전 지구적 북과 전 지구적 남 사이에 아직도 중요한 차이들이 존재하지만, 이곳들이 동질적인 지대들은 아니다. 위계와 분할의 선들은 훨씬 더 복잡하다. 오늘날 우리는 착취의 지형도를 그리려면 지리학자가 되어야 한다.

▶ 다중의 살의 원소적 힘과 괴물스러움

다중의 살은 순수한 잠재력이자 형성되지 않은 삶의 힘이며, 이런 의미에서 부단히 삶의 충만함을 목표로 삼는, 사회적 존재의 원소이다. 이러한 존재론적 관점에서 볼 때, 다중의 살은 사회적 존재를 계속해서 확장하는, 그리고 모든 전통적인 정치경제학적 가치 척도를 초과하여 생산하는 원소적인 힘이다. 바람과 바다와 대지를 붙잡아 이용하려 시도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언제나 우리가 붙잡는 정도를 초과한다. 그래서 정치적 질서와 통제의 관점에서 볼 때, 다중의 원소적 살은 파악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적 신체의 위계적 기관들 속으로 도무지 포획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중의 살이 생산하는 것은 혼란이나 무질서가 아니라 공통적인 것이다.

▶ 시간의 두 관점에서 본 다중

① 영원의 관점에서 본 다중 (존재론적 다중) : 역사의 어느 시기에서나 인류는 권위와 명령을 거부해 왔고, 특이성의 환원할 수 없는 차이를 표현해 왔으며, 무수한 반란들과 혁명들에서 자유를 추구해 왔다. 자유를 향하는 능력, 그리고 권위를 거부하는 성향은 가장 건강하고 고귀한 인간 본능들, 즉 영원의 실재적 기호들이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영원을 말하기보다, 이 다중이 항상 현재 속에서, 영속적인 현재 속에서 활동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② 역사적 다중 혹은 미래의 다중(the not-yet, multitude) : 문화적, 법적, 경제적, 정치적 출현 조건들을 토대로 해서 정치적 기획을 통하여 앞으로 발생시킬 다중이다.

====>①+ ② always-already and not-yet (항상 존재하면서도 아직 존재하지 않는)

3.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위기

냉전의 종식은 민주주의의 궁극적 승리로 생각되었으나, 오늘날 민주주의의 개념과 실천들은 모든 곳에서 위기에 처해 있다. 민주주의의 전지구적 횃불이라고 자임하는 미국에서조차 선거 제도와 같은 중심적 제도들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다. 그리고 세계의 많은 지역들에서는 민주적 정부 체제에 대한 흉내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항구적인 전지구적 전쟁 상태는 그나마 존재하는 취약한 형태의 것마저 침식한다.

▶ 지구화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네 가지 견해

① 사회민주주의적 주장들 : 경제적 지구화가 실제로는 하나의 신화, 그것도 반민주주의적 결과들을 낳을 강력한 신화라고 주장. 국민국가들이 그들의 주권을 옹호할 수 있고/옹호해야만 하고, 국가적 및 초국가적 차원에서 경제를 더 많이 통제할 수 있고/통제해야만 한다고 주장.

② 자유주의적 세계주의 : 지구화가 민주주의를 촉진한다고 봄. 일반적으로 지구화가 경제적·정치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들을 가져오며, 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인 전쟁 상태를 다룰 수단을 제공해 준다고 강조. 전지구적 전쟁 상태로 인하여 자유주의적 세계주의는 주요한 정치적 입장이 되었고, 외관상 미국의 전지구적 통제의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되었음.

③ 미국헤게모니주의 : 일반적으로 지구화가 민주주의를 고무하는 것은 미국 헤게모니와 자본 지배의 확장 자체가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의 확장을 포함하기 때문이라고 주장. → 미국 예외주의

④ 전통적-가치 보수주의 : 비규제적 자본주의와 미국 헤게모니가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를 가져온다는 지배적인 우익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지구화가 민주주의를 방해한다는 사회민주주의적 관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매우 다른 이유. 즉 그것이 전통적인, 보수적 가치들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한다.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주장들이 불충분한 이유

① 우선 민주주의는 오늘날 규모의 도약 즉 국민국가로부터 지구 전체로의 확대에 직면해 있고, 따라서 그것의 전통적인 근대적 의미들과 실천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상태이다. 민주주의는 새로운 틀과 이 새로운 규모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② 이러한 주장들이 불충분한 두 번째이자 더욱 복잡한 실질적인 이유는, 이 주장들은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때조차도 항상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유예시킨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자유주의적인 귀족적 입장은, '자유 먼저, 그리고 민주주의는 아마도 나중 언젠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 근대의 민주주의 기획의 성과

①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난 18세기 혁명들은 민주주의를 분명하고 단순한 용어 – 만인에 의한 만인의 지배 – 로 이해했다. 고대의 민주주의 개념에 대한 최초의 위대한 근대적 혁신은, 사실상, 이 보편적인 특징, 즉 만인으로의 절대적 확장이다. 예컨대, 페리클레스(Pericles)는 고대 아테네 시대의 민주주의를, (귀족제 또는 과두제에서의) 소수의 지배나 (군주제와 전제에서의) 일자(一者)의 지배와 달리, 다수의 지배로 규정했다. 17세기와 18세기 사이에 근대 유럽과 북미에서 다수의 민주주의라는 이 물려받은 관념은 만인의 민주주의로 확대·변형되었다.

② 대의(representation)라는 관념. 대의는 공화주의적 통치를 국민국가의 폭넓은 영토들 내부에서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뚜렷하게 근대적인 실천적 메커니즘이다.

▶ 대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대의는 두 가지 모순적인 기능들을 수행한다. 즉 그것은 다중을 통치[정부]에 연결하고 동시에 분리한다. 대의는, 동시에 연결시키고 자르며 접착시키고 분리시킨다는 점에서 이접적 종합이다. 이런 점에서 대의는 민주주의와 대립된다. 우리의 권력(power)이 일단의 지배자들에게로 이전될 때, 그때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지배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권력과 통치로부터 분리된다. 하지만 이러한 모순에도 불구하고, 19세기 초반에 이미 대의는 근대 민주주의를 규정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대의의 특정 형식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되었다. 대의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장벽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필수적인 보충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 대의의 세 형태(막스 베버)

① 전유된 대의 : 대의자들과 피대의자들 사이가 가장 약하게 연결되고 가장 강하게 분리된 형식이다. 이 유형에서는, 대의자들이 피대의자들에 의해서 어떤 직접적인 방식으로 선출되거나, 임명되거나, 통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의자들은 피대의자들의 이해관계와 의지를 단지 해석할 뿐이다. 베버가 이 대의형식을 전유되었다고 부르는 이유는, 이 대의자들이 모든 의사결정 권력들을 그들 자신을 위해 전유하기 때문이다.[11]

② 자유로운 대의 : 중간 위치에 놓이며 의회 체제에 전형적이다. 여기에서 피대의자들은 대의자들과 다소 직접적인 연결을 갖지만, 그들의 통제력은 제한되어 있다. 예컨대 대부분의 선거 체계에서, 피대의자들이 행사하는 선택이나 통제는 주로 시간적 조건에 따라 제한된다. 왜냐하면 피대의자들은 오직 2년이나 4년, 또는 6년마다 대의자들과 연결될 뿐이기 때문이다.

③ 구속된 대의 : 더 강한 연결을 창출하고 피대의자들의 지시에 대의자들이 항상 복종하도록 구속하는 다양한 메커니즘들은 모두 대의자들의 자율을 약화시키는 데 기여한다.[12] 예컨대, 잦은 선거나 심지어 대표자들의 항상적인 소환가능성은 정기적 선거라는 방식에 의해 유권자들에게 부과된 시간적 제한을 감소시킨다.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대의자들로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확장하는 것 역시 피대의자들의 권력에 대한 제한들을 감소시킨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들이 정부의 결정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은 대의의 분리를 감소시킨다.

▶ 대의와 관련된 정치적 과제

이 베버식의 유형학으로부터 시사받는 정치적 과제 —모든 전유된 대의 형식을 자유주의적 형식들로 변형하고 이 자유주의적 형식들을 더 직접적으로 구속되는 형식들로 변형하면서 피대의자들과 대의자들 사이의 연결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러한 시도들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의 현재의 정치적 상황을 개선할 수 있지만 그것들은 결코 근대 민주주의의 약속, 즉 만인에 의한 만인의 지배를 실현하는 데 성공할 수는 없다. 이 각각의 형식들 — 전유된 대의, 자유로운 대의, 구속된 대의- 은 우리를 대의의 근본적인 이중적 성격(그것이 연결하면서 동시에 분리한다는 것)에로 되돌려 놓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급진적인 혁신과 새로운 과학을 요구한다.

▶ 여론

여론은 저항 속에서 태어난 대안적인 표현 네트워크를 표현하기에 적실한 용어가 아니다. 개인적 표현의 중립적 공간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통일된 사회 전체를 나타내는 — 또는 이 두 양극의 매개된 조합을 나타내는 —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회적 표현 형식들을, 지배 권력에 저항하고 그것의 내부로부터 대안적 표현들을 생산해 내는 다중의 네트워크들로 이해할 수 있을 뿐

11) 우리는 또 이 유형을 **가부장적 대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 용어는 봉건 영주가 영지[토지]의 농노들을 대의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12) 한스 켈젠은, 대의자들이 피대의자들의 의지를 따르도록 법적으로 항상 묶여 있는 이 구속된 형식이 유일하게 유효한 대의 형식이라고 주장한다. “의심할 바 없이 …… ‘대의적’이라고 불리는 현존하는 어떠한 민주주의들도 실제로는 대의적이지 않다.” Hans Kelsen, *General Theory of Law and State*, trans. Anders Wedberg, G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45, 298쪽.

이다. 여론은 결국 통일적인 목소리도, 사회적 평형 상태의 평균 지점도 아니다. 여론 조사와 설문 조사가 우리로 하여금 공중(the public)을 하나의 추상적 주체로 (즉 공중은 x나 y를 생각하거나 x나 y를 원한다고) 생각하도록 이끌 때, 그것은 순전히 허구이거나 신비화이다. 여론은 대의의 형식도 심지어는 대의의 근대적, 기술적, 통계학적 대체물도 아니다. 여론은, 민주적 주체라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소통, 문화적 생산, 그리고 모든 여타의 삶정치적 생산의 형식들을 통해 정치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해야만 하는 권력 관계들에 의해 규정된 **갈등의 장**이다. 이 여론의 장은 공정한 게임이 벌어지는 장이 아니라 오히려 근본적으로 비대칭적인 장이다. 왜냐하면 미디어들은 일차적으로 대기업들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이다.

▶ 개혁과 혁명

개혁과 혁명 사이에는 아무런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개혁과 혁명이 같은 것이라서가 아니라 오늘날의 조건에서는 그것들이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변형의 역사적 과정들은 너무나 근본적이어서 개혁적 제안들조차 혁명적 변화들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전지구적 체계의 민주적 개혁들이 진정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될 때, 그것들은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드러내며, 또 이 변화를 어느 때보다 더 가능하게 만들어 준다. 어떤 제안이 개혁적인지 아니면 혁명적인지를 두고 골머리를 앓는 것은 쓸모없는 일이다.

▶ 18세기로 돌아가라!

이제 우리는 이 모든 다양한 회의론자들에게 말한다. 18세기로 돌아가라! 18세기로 돌아가야 하는 한 가지 확실한 이유는 그때에는 지금처럼 민주주의 개념이 부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18세기 혁명가들은 민주주의를 전위당의 지배라거나 때때로 그리고 제한된 방식으로 다중에 책임을 지는 선출된 관리에 의한 지배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민주주의가 모든 사람에 의한 모든 사람의 지배를 필요로 하는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명제임을 알고 있었다. 만약 18세기 혁명가들이 유토피아적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지금과는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었다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 역시 도움이 된다.

▶ 오늘날의 마그나 카르타

오늘날 마그나 카르타의 내용은 무엇이 될 것인가? 전 지구적 귀족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평화와 안보는 분명 중요한 목표들이다. 일방주의적인 군사적 모험들과 끝이 없을 것 같은 전 지구적 전쟁 상태가 근본적인 조건이다. 귀족들에게는 전 지구적 생산력들을 갱신하고 지구 인구 전체를 생산과 교환의 회로들 속으로 끌어들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 가난을 해소하고 최빈국들의 부채들을 탕감하는 것과 같은 우선사항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자선행위들이 아니라 세계에 존재하는 생산적 잠재력들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력들이 될 것이다. 또 다른 우선사항은 사유화의 과정들을 전도시켜 토지, 종자들, 정보, 지식들과 같은 필수적인 생산적 자원들에 공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창출하는 것이다. 자원들을 공통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은 농업에서 인터넷 테크놀로지에 이르기까지 창조력과 생산의 잠재력들을 확장하고 갱신하는 데 필수적이다.

▶ 경제적 자주관리를 넘어서 삶 전체의 자율적 조직화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통적이고 협력적인 네트워크들에 의존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다시 지적, 정서적, 사회적 관계들의 새로운 네트워크들을 생산하는, 새로이 헤게모니를 얻어가는 "비물질적" 노동형태들은 경제적 자주관리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들을 제공해주는데, 이는 생산에 필수적인 협력의 메커니즘들이 노동 자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잠재력은 경제적 자주관리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자기조직화에도 적합하다. 실제로 노동의 생산물들이 물질적 재화

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들, 소통의 네트워크들, 그리고 삶의 형식들이라면, 그렇다면 경제적 생산이 곧바로 일종의 정치적 생산, 즉 사회 자체의 생산을 의미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삶정치적 생산) 따라서 우리는 주권 아니면 아나키라는 낡은 공갈에 더 이상 속박되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들을 공통적으로 창조해 낼 수 있는 다중의 힘은 주권과 아나키 사이에 위치한다. 따라서 그것은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 언어와 다중

아마도 우리는 다중의 의사 결정을 표현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다중은 마치 언어처럼 조직되어있다. 언어의 모든 요소들은 하나가 다른 것과 구별되는 차이들에 의해 규정되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은 모두 함께 기능한다. 언어는 받아들여진 규칙들에 따라 무한한 수의 가능한 방식들로 조합되는 의미들의 유동적인 망이다. 그렇다면 어떤 특수한 표현은 언어적 요소들의 조합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들의 생산이기도 하다. 표현은 사건에 이름을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표현이 언어로부터 나타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결정은 전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건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중으로부터 나타난다. 하지만 언어적 표현을 위해서는 표현에 언어를 사용하는 분리된 주체가 있어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의 유비가 갖는 한계이다. 언어와는 달리 다중은 그 자체가 능동적인 주체로서 마치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와 같기 때문이다.

▶ 다중의 민주적 무력 사용

① 정치에 종속된다. 정치의 도구일 뿐이다. 주권은 정치의 토대로 무력을 사용한다.
② 방어용으로만 사용한다. 폭정에의 항거. 무기소지권에 대한 우파적 해석(개인의 무기 소유권)과 다중적, 공화주의적 해석(폭정에 항거할 다중의 권리) 다중을 방어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가 필요함이 분명하다.
③ 폭력의 사용은 민주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④ 무기에 대한 비판, 즉 오늘날 어떤 무기들이 효과적이고 적합한지에 대한 숙고.[13)]

▶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사랑

오늘날 사람들은 사랑을 하나의 정치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랑의 개념이 바로 다중의 구성적 힘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다. 사랑의 근대적 개념은 부르주아적 커플에, 그리고 핵가족의 밀실공포증적 울타리들에 거의 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사랑은 엄밀히 사적한 일로 여겨져 왔다. 우리에겐 사랑에 대한 더 넓고 더 자유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우리는 전근대적 전통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공적이고 정치적인 사고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독교와 유대교 공히 사랑을 다중을 구성하는 정치적 행위로 파악한다. 사랑은 바로, 우리의 확장된 만남들과 부단한 협동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것을 의미한다. 기독교적이고 유대교적인 신의 사랑에는 필연적으로 형이상학적인 것은 정말로 하나도 없다. 인간에 대한 신의 사랑과 신에 대한 인간의 사랑 모두 다중의 공통적인 물질적·정치적 기획 속에서 표현되고 구체화된다. 우리는 오늘날 사랑의 이러한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죽음만큼 강한 사랑－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

▶ 절대적 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와 다른 점

삶정치적 생산이 경제적임과 동시에 정치적이라는 사실, 그것이 곧바로 사회적 관계들을 창출한다

13) 새 무기의 사례들 ① kiss-ins by Queer Nation ② carnival and mimicry (축제와 흉내) ③ 많은 인원 그 자체 ④ 불법 이주.

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구성적 힘의 기반을 제시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다중의 민주주의가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온 "직접 민주주의" – 이 제도에서는 우리 모두가 모든 정치적인 결정에 대해 계속적으로 투표를 하기 위해 생활과 일로부터 시간을 빼내야 것이다 – 와 거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회주의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사회주의가 너무나 많은 저녁들을 필요로 한다는 점일 것이라는 오스카 와일드의 풍자적인 언급을 상기해 보라. 삶정치적 생산은 사회적 관계들을 협력적으로 창출하고 유지하는 정치적인 작업들을 지루한 저녁 회합들 속에서가 아니라 소통적이고 협력적인 사회적 생산의 네트워크들 자체에서 수행할 가능성을 제공해 준다. 결국 사회적 관계들을 생산하는 것은 경제적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정치적인 작업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적 생산과 정치적 생산은 일치하며, 생산의 협동적 네트워크들은 사회의 새로운 제도적 구조를 위한 틀을 제시해 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정치적 생산을 통해 협동적으로 창출하고 유지하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우리는 "절대적"이라고 부른다.

▶ 맺는 말

다중들의 운동 속에서 그리고 공통적이고 협력적인 결정들의 축적을 통해 혁명적 정치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파열의 순간 혹은 **클리나멘**을 붙잡아야 한다. 그렇다면 삶권력의 파괴적인 예외상태에 직면할 때에 민주적인 삶정치의 구성적인 예외상태 또한 존재한다. 웅대한 정치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구성적 시간성을 창조하는 이 순간을 언제나 추구한다. 활이 새로운 시간성의 화살을 날려 새 미래를 여는 것이다. (...)

우리는 이미 오늘날 시간이 이미 죽은 현재와 이미 살아 있는 미래로 갈라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심연이 거대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머지않아 하나의 사건이 그와 같은 살아 있는 미래 속으로 우리를 화살처럼 쏘아 넣을 것이다. 이것은 사랑의 진정한 정치적 행동이 될 것이다. ♠